

韓日農民文學論의 比較考察*

—1930年 前後를 中心으로—

芹川 哲世**

I.

農民文學의 概念은 무엇인가? 그에 대해서는 대략 두가지 견해로 압축할 수 있다. 넓은 의미로는 作中人物이 農民이거나 作品의 背景이 農村이나 自然인 文學을 말하며 좁은 의미로는 “흙과의 숙명적인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농민세계에 생활상을 제시하고 농민의 농민다운 노동의 생활상이나 곤경 또는 집념과 같은 영역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있는”¹⁾ 문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農民文學의 概念을 택하든간에 그 개념에 입각해서 作品을 抽出할 때는 과연 그것이 農民文學인가 아닌가를 엄밀히 단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既存의 文學史나 文學年表 등에서는 일단 廣義의 農民文學 概念으로 作品을 택하고 있는 것이다.²⁾

* 이 논문은 문교부 학술연구조성비로 쓰여진 것임.

** 國文學科 同門, 世宗大學 助教授(國文學 專攻)

1) 李在統, 「韓國現代小說史」(弘盛社, 1979), pp. 352-353.

일본에서는 다음과 같은 定義를 내리고 있다.

① “農民의 生活을 主體로 하고 그 實態를 파악하고 農民像의 描寫와 生活의 어려움등을 통해서 農民의 政治的 經濟的 解放을 意圖한 것” 市川爲雄 (『近代文學研究必携 增補版』〈農民文學〉項 學燈社, 1963 p. 343)

② “農民의 生活現實이나 社會的 構造를 農業主義者인 農民의 感覺에 의해서 發展의 으로 把握한 文學” 高橋春雄 (『現代日本文學大事典』〈農民文學〉項 明治書院, 1968), p. 876.

2) 山田清三郎의 「近代日本農民文學史」(上, 下 理論社, 1976)에서는 “地方農山漁村의 自然과 風物,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어떠한 형태라도 反映시키거나, 作者 스스로가 創造하고자 意圖한 作品으로, 文學史·社會史·文化史의 으로 考察의 對象이 될 수 있는”(p.1) 作品까지 포함하고 있다.

그러면 日本과 韓國에서는 “農民文學”이라는 用語와 概念이 어떻게 胎動되었고 變異되었는가, 그리고 역사적 배경은 무엇인가? 兩國 모두 “農民文學”이라는 目的意識과 批評精神을 동반한 用語가 農民의 生活現實을 農民 自身の 觀點에서 表現하려는 自覺에서 생겨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日本에서는 1906~7년경부터 “鄉土藝術”(Heimat-Kunst, Heimt-Dichtung, Volkskunst)³⁾과 같은 文學用語가 輸入되어 近代文學에서 쓰여지기 시작했다. 그것이 1923~4년경부터 “農民文學”이라는 用語로 변하여 여러 가지 낱양식⁴⁾을 포함하면서 近代文學史에서 意味와 內容을

小田切秀雄·南雲道雄編「日本近代農民文學史年表(作品一覽表)」(犬田卯著「日本農民文學史」農山漁村文化協會, 1977년 所收)에서는 “鄉土文學·田園文學·自然文學 등으로 불리는 것과 어떠한 형태이든지 農民과 農村的 生活에 言及하고 있는 것(다만 作品 가운데 小部分이나 小道具로서 農民·農村 生活이 描寫된 것은 제외)”을 말한다.

- 3) 그 前身인 村落小説이 發達해서 1895년 以來 雜誌「田園」(Das Land), 「鄉土」(Heimat) 등에 의해 일으켜진 運動으로 “田園의 趣味, 農民의 生活을 描寫하되 一部分의 이 아니고 全世界的으로 하여 都會의 文明에 病弊한 人類에게 清新 自由스러운 鄉土熱을 鼓吹하야(中略) 여기서 그 特色있는 人生과 自然과를 發見코자한”(崔曙海譯)文學이고, 이 藝術의 主唱者는 리엔하르트, 代表者는 푸렌센, 그 代表作은 「이에른울」(1902년 發表)이다. 이 藝術은 또한 各地方의 民間에 傳해 내려오는 歌謠·舞踊·演劇 등의 鄉土藝能과 手工藝品(民藝)과 그 制作活動을 가리키기도 한다. (生田長江外「近代文藝十二講」新潮社, 1921, 竹內敏雄編「美學事典」弘文堂 1974. pp.507-508 등 參照) 片山正雄「鄉土藝術論」(帝國文學, 1907년 4월~5월), 櫻井天壇「最近獨逸의 鄉土文學」(同 1908년 3월)을 위시해서 1923~24년경까지 中村屋湖「鄉土藝術について」, 「鄉土藝術に對する要求」, 千葉龜雄「鄉土藝術論」, 中澤靜雄「鄉土藝術論」, 伊福部隆輝「鄉土藝術小論」, 相田隆太郎「鄉土文學論」 등이 新聞雜誌에 發表되고, 文學의 一分野로서 理念의 移植 開拓을 목표로 했다. (前掲「日本近代農民文學史年表」와 「日本農民文學史」p. 19), 農民文藝會編「農民文藝十六講」(春陽堂, 1926년)에는 大槻憲二에 의해서 「獨逸における 鄉土文學運動」이 紹介되어 있다. 韓國에서는 前掲「近代文藝十二講」의 獨逸篇을 縮譯한 崔曙海의 「近代獨逸文學概觀」(「朝鮮文壇」1925. 2, pp.101-102)이 鄉土藝術의 첫 紹介일 것이다.
- 4) 農民·農村의 社會的 問題에 관한 文學的 反省이나 重農主義的인 世界觀 속에서 歷史的으로 變動해온 것이고, 특히 初期에는 直接的으로는 傳統主義나 地方主義, 民衆藝術論의 論理와 倫理 속에 포함되어 있던 要素가 獨立해서 나온 一面이 있다. (高橋春雄, 初期의 農民文學論とその性格について <早稻田大學「國文學研究」戰後第11輯, 1954. 12 所收>는 그간의 事情을 鏡

確立하여, 文學運動의 形態를 지니게 되었다. 그러나 “農民文學”이 文壇의 中心的인 問題로서 論議된 일은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1923년 이후 저어널리즘에서 여러 번 취급되기는 했으나 그것조차 農民文學의 推進者가 編輯部와 특수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早稻田文學」, 「文章俱樂部」, 「新潮」 등이거나 文學과는 그리 相關이 없는 雜誌인 「地方」 등이었을 뿐이다.⁵⁾ 그러던 것이 1930년 11월 하리코프市에서 개최된 「프로레타리아 革命作家 第2回 國際大會」의 諸決議에서 日本 프로레타리아 作家 同盟에게 農民文學에 관심을 가지도록 요청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NAPF內에 「農民文學硏究會」가 결성되었고 所謂 雜誌 「農民」 派와 論爭을 전개하게 되었으며 급기야는 특수한 농민잡지 뿐만 아니라 一般 新聞과 저어널리즘 등에서 文壇의 큰 事件으로 화려하게 취급되기에 이르렀다.

한편 韓國에서는 1925년 初 李晟煥이 「朝鮮文壇」을 통해서 “農民文學을 이르기라”⁶⁾고 문제를 提起했으나 文壇에서는 호응받지 못하고 1927년에 「朝鮮農民」紙上에서 다시 農民文學을 提唱하였다.⁷⁾ 그러다가 前述한 日本의 하리코프大會의 農民文學에 관한 決議에서 자극을 받아 비로소 文壇에서 農民文學이 擧論되기 시작했다. 먼저 新聞紙上에 하리코프大會가 紹介되었고⁸⁾ 같은 해에 安舍光, 白鐵이 農民文學論爭을 展開한 것이다. 그후 解放前後에는 斷片的인 言及을 제외하고는 本格的인

토하고 있다.)

- 5) 當時 日本은 大正末期(1924~5)부터 昭和初期(1926~7)에 걸쳐서 社會적으로 큰 激動期를 맞이하였으며 文學의 世界에도 反映되어 藝術至上主義의 立場을 固守하는 既成文壇과 “革命의 文學”을 目標로 하는 勞動文學流派와 “文學의 革命”을 標榜하는 新感覺流派的 所謂 “三派鼎立”의 樣相을 띠고 있었으며 農民文學運動은 文壇 한쪽 구석의 事件으로서 거의 看過되어 있었다.
- 6) 李晟煥, 新年文壇을 向하여 農民文學을 이르기라 (「朝鮮文壇」1925. 1)
- 7) 李晟煥, 農民文學의 提唱(「朝鮮農民」1927. 6)
- 8) 朴泰遠譯, 「하리코프」에 열린 革命作家會議(「東亞日報」1931. 5. 6~10) 權煥, 하리코프大會成果에서 朝鮮프로藝術家가 얻은 敎訓(「東亞日報」1931. 5. 14~17)

論文은 나오지 않았으나 1970년을 전후해서 農民文學論이 다시 활발히 전개되었다. 비록 1930년대 농민문학 論爭과는 次元을 달리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農業國家 韓國의 農民文學에 대한 이해는 現代文學史에서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되어 있다.⁹⁾ 本稿는 이러한 점에서 1930年를 前後해서 韓國의 農民文學 論議가 어떻게 준비되어 어떤 角度에서 행해졌는가, 그리고 그 概念은 어떤 性格의 것이었던가를 당시 日本에서 論議된 農民文學論과 比較 검토해서 그 成果와 문제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 시기의 農民文學論에 대해서는 白鐵, 李在銑교수의 文學史¹⁰⁾를 비롯하여 金允植, 申東旭교수의 批評史¹¹⁾ 등의 先行業績들이 있다. 本稿도 이분들의 成果에 힘입은 바 컸으나, 이제까지 거의 언급되지 않은 「朝鮮農民」派의 農民文學論도 고찰해 보고자 한다.

II.

韓國에서 近代文學史上 農民文學이 처음으로提起된 것은 前述한 바와 같이 李晟煥의 「新年文壇을 向하여 農民文學을 이르키라」에서였다. 그는 여기서 “朝鮮의 文藝는 오늘날 朝鮮사람의 살림의 反影이라야” 한다며 “朝鮮사람 全體의 九割을 가진 一千四百萬 大衆인 農民生活의 反影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전제하고, 그때까지의 朝鮮의 文壇은 그렇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現在 朝鮮農民이 무거운 榨取에 破産宣告 당하여 男負女戴로 떠나가고, 青年男女가 田園生活을 박차고 都

9) 金炳傑, 農民文學論 (韓國文學大事典, 文元閣, 1973) pp. 231-233.
金宇鍾, 素材主義와 歷史主義의 對立 (文學論爭集) 韓國文學大全集 附錄 1, 太極出版社, 1976) pp. 222-226.

10) 白鐵, 「朝鮮新文學思潮史——現代篇」(白楊堂, 1949).

李在銑, 「韓國現代小說史」(弘盛社, 1979).

11) 金允植, 「韓國近代文藝批評史研究」(한일문고, 1973).

申東旭, 現代批評 (韓國現代文化史大系 1, 文學·藝術史) 高大民族文化研究所, 1975).

申東旭, 「韓國現代批評史」(春秋文庫, 한국일보社, 1975).

솔로 흘려 나가는 現象 등을 말하고는 이러한 農民에게 田園生活의 精神的 價値와 使命을 自覺케 하며 慰安을 줄 수 있는 文學의 必要性을 강조하였다. 그 例로서 톨스토이, 도스토예프스키, 투루게네프 등의 農民文學이 露西亞의 農民에게 끼친 影響을 들었으며, 그것이 알렉산더 3世의 農奴解放에 하나의 커다란 原因이 되었음을 지적했다.¹²⁾ 또 이 글에서 그는 당시 朝鮮文壇의 享樂的, 頹廢的 文學에 대한 批評의 代案으로 農民文學을 提案하고 있는 바, 文學의 純粹主義에 對立되는 功利主義의 人 見解로서 그 意義를 찾을 수 있다.¹³⁾ 그러나 이 問題 提起도 文壇에서는 호응받지 못하고 1930年代에 들어가서 프로派의 農民文學論이 나올 때까지 方仁根, 鄭寅燮 등¹⁴⁾이 비슷한 發言을 했을 뿐이었다. 그후 1925년 10월에 설립된 朝鮮農민사의 中央理事長이 되어 朝鮮農민사에서 발행된 기관지 「朝鮮農民」의 編輯을 擔當한 李晟煥은 재차 農民文學을 提唱했다. 그는 「朝鮮農民」에서 “沈滯된 오늘의 文壇을 건지려면 末稍的이고 刹那的인 都市文學을 버리고 藝術的 眞價値를 深藏한 農民文學을 建設”해야 한다고 力說하고, 從來의 都市中心文學에 대치되는 地方性 鄉土性을 가진 田園文學을 要求하고 있다.¹⁵⁾

이어 1929년 4월, 「朝鮮農民」에서는 우리나라 農民文學의 첫 特輯인 “農民文藝 運動號”를 엮었다. 成果는 어땠든간에 農民文學史上 획기적인 일이었다. 「大地의 부르지름」이라는 卷頭言에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우리가 말하는 農民文藝는 古代文學에 나타나는 田園文學이 아니오 또는 鄉土禮讚文藝도 아니다. 그런 貴族階級の 娛樂品이거나 特權階級の 自衛手段의 使用品은 아니다. 또는 一部 知識階級の 高級遊戲品도 勿論 아니다. 大地에 뿌리박고 人生을 最高目標으로 指導하는 農民文藝

12) 李晟煥, 「朝鮮文壇」 1925. 1, pp. 165-167.

13) 申東旭, 「現代批評」 p.151 참조.

14) 方仁根, 農民文學과 宗教文學 (『青年』 1927. 2~3).

鄭寅燮, 農民文藝의 朝鮮의 必要 (『新生』 1930. 5).

15) 李晟煥, 農民文學의 提唱 (『朝鮮農民』 1927. 4. 6) pp.2-3.

乃至 汎 프로레타리아文藝를 말하는 것이다.¹⁶⁾ 또 “編輯餘言”에는 “특히 讀者 諸氏와 같이 기뻐할 것은 이달號부터 朝鮮斯界의 重鎮인 文士 諸氏와 깊은 因緣을 맺게 된 것과 여러先生의 作品이 本誌에 실일 그것이다. 本誌 今月號에는 朝鮮서 처음으로 불독경을 여러놓은 農民文藝運動의 主張이 全誌를 채웠다. 今後 이問題는 多方面으로 展開될 것을 본다.”라고 그 意慾을 나타내고 있다. 다음에 目次의 一部分을 摘記해 본다.

農民文藝에 對한 草稿	金 基 鎮
農民文藝運動의 提唱	李 晟 煥
農民文藝와 啓蒙運動	金 道 賢
農民學校와 農民劇	李 慶 孫
農民文藝運動에 對한 諸家의 意見	方定煥, 尹白南, 崔獨騰 등
佛蘭西의 農民文藝概觀	櫻 桃 園 人
名作農民小說의 梗概—어떤 農夫의 生涯	에미일 · 기요만 趙白菽譯
——기타, 詩, 民謠, 詩調, 雜錄등등——	

金基鎮의 「農民文藝에 對한 草稿」는 “공장으로! 농촌으로!”라는 目標로 大衆을 깨우치는 文藝運動이 1927년 以後부터 本格化되기 시작했다고 말하고, 우선 勞動者와 農民이 알아 볼 수 있게 써야만 하겠다고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우리들의 農民文藝는 …中略… 어찌하여서 땅을 파고 또 파도 입으로 들어갈 것은 해마다 줄어가며 어찌하여서 그렇게 實여운 땅을 자기들은 四方一寸 되는 자리하나를 차지하지 못하였으며 땅 님자는 누구며 자기는 누구며 앞과 뒷산 가지고 누어서 먹고 잘사는 그들을 살찌우는 사람은 누구며 나아가서 이 社會는 자기들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 것인가 그리고 자기들은 앞으로 어떻게 하여야겠는가 하는 이 모든 眞實로 그들에게 있어서 重要한 것을 알리고 깨닫게 하기 爲하여서 必要한 것이다.

그리고 農民文藝를 어떻게 쓸 것인가 어떠한 精神과 形式을 갖추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方法을 提示하고 있다. 첫째, 農民文

16) 「朝鮮農民」1929. 3, p.1.

藝는 “農民으로 하여금 封建的 또는 小市民的 意識과 趣味로부터 떠나서 서로 단결하고 나아가게 하는 器具”가 되어야 하며, 둘째, 거의 全部가 無識한 農民들을 위해 글을 듣기만 해도 쉽게 理解할 수 있도록 써야 하고, 셋째, 小說의 題材를 “농민의 生活相”에서 取할 것이며, 農民 以外的 地主나 資本家 또는 小市民的 階級の 生活相에서 取한다 해도 반드시 “農民의 生活과의 對照로써만” 取하여야 한다. 네째, 小說家는 “細微한 心理描寫나 性格描寫를 버리고 뚜렷뚜렷하게 事件과 人物의 境遇와 거기서 생기는 葛藤과 人情의 流露와 社會批判 等を 보여주기에 全力을 다할 것이고, 人物과 境遇와 事件과의 進行과 結末은 客觀的 現實的 實在的 具體的이어야 하며 따라서 全體의 筆法도 寫實的이어야 한다. 다만 군대군대다가 感情의 激動의 程度에 따라서 抽象的 空想的主觀的 描寫를 쓰는 것이 無妨하다.” 다섯째, 詩에서는 “그 樣式만은 在來의 民謠調를 取하여 그들의 입에 친한 맛을 주고 쉽게 정들게 하여야 한다.”¹⁷⁾

李晟煥의 「農民文藝運動의 提唱」은 前揭한 그의 主張과 大同小異하지만, 都市브르조아文藝가 盛行하고 있는 時代에 資本主義的 物質的 文明은 모든 것이 都市中心主義이니만치 鄉土藝術을 高調하고 發揮하는 鄉土主義的 態度가 必要하다고 강조하고 있다.¹⁸⁾

金道賢의 「農村文藝와 啓蒙運動」은 李晟煥의 글과 마찬가지로 農村文藝와 都市文藝의 區別이 確實히 지어져 있지 않은 것을 지적하고 전 민족의 八割 이상을 차지하는 농민을 주시하고 이제부터는 농촌과 농민을 중심으로 하는 문예운동의 바람을 일으키자고 주장했다. 그리고 方法을 제시했는 바 우선 농촌계몽운동부터 시작하고 “한사람도 글자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이 먼저 할 일이다”라고 농촌계몽운동의 一環으로서 農村文藝를 주장하고 있다.¹⁹⁾

17) 金基鎭, 「朝鮮農民」1929. 3, pp.2-3.

18) 李晟煥, 「朝鮮農民」1929. 3, pp.4-5.

19) 金道賢, 「朝鮮農民」1929. 3, pp.6-8.

「佛蘭西의 農民文藝概觀」과 「名作農民小説의 梗概—어떤 農夫의 生涯」(다음호에는 레—몬드의 <農民>)는 日本의 農民文藝會編『農民文藝十六講』(春陽堂, 1926)에 수록된 第五講 和田傳의 「佛蘭西に於ける農民文藝」와 第十二講 「農民小説名作梗概」에 收錄된 作品을 翻譯한 것이다. 이 六百餘페이지에 달하는 『農民文藝十六講』은 2年半 前부터 活動하기 시작한 農民文藝會가 日本에서 처음으로 만든 農民文藝運動組織으로서의 責任과 情熱을 지니고 만든 책으로, 農民文學의 理論, 現代社會와의 關係, 日本 農民文學의 歷史의 概觀, 英佛獨逸 등 여러 나라의 近代農民文學作品의 展望, 農民文學運動理論 등에 걸쳐서 敘述하고 있어 가히 當時 文學界의 最高水準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 著書였다. 이 책은 오늘날까지도 그 빛을 잃지 않고 있으며, 상세한 農民文學敘述과 그 理論의 包括的인 展開은 오늘날에도 最上의 水準이라 할 만하다.

이상의 글 외에 주목해야 할 것은 “農民文藝懸賞募集”이다. 農民小説 외에 農民劇, 農民日記文 등을 募集한 것이지만, 韓國에서는 첫 試圖였다는 意味에서 意義가 컸다. 五卷四號(1929. 6)부터 當選小説을 發表하고 있는데, 여기서 二等으로 當選된 崔仁俊은 後에 農村作家로 알려진 사람이다. “農民文藝運動號”의 出現을 既成 文壇은 表面上 목살했으나 프롤레타리아文學 一派에게는 커다란 刺戟이 되었을 것이다.

그후 1930년 朝鮮農民社는 分열되었고 「朝鮮農民」은 「農民」으로 이름이 바뀌었으나 作品發表는 꾸준히 해서 1932년 8월호에서 다시 特集 “農民文學號”(編輯餘言)를 냈다. 거기에는 白民의 「農民文學을 建設하자」, 金岸曙의 「取材로 農民文學을 是認한다」, 주요한의 「農民文學이라고 區別할 것 없다」 등과 기타 小説과 農民詩 등이 發表되었다. 白民의 「農民文學을 建設하자」는 農民文學을 첫째, 農民의 立場에서 지어지는 文學일 것, 둘째, 農民의 生活現實을 題材로 한 文學일 것, 셋째, 農民이 읽을 만한 平易한 文學일 것, 넷째, 農民의 元氣를 振作시키는 文學일 것 등의 素朴한 規定을 내린 뒤 그 具體的 建設方案으로서 朝鮮農民社와 같은

機關에서 農民文學建設運動을 일으켜야 한다고 말했다.²⁰⁾ 金岸曙와 朱耀翰의 글은 “농민문학이라야 무슨 다른 문학과 별도로 구별될 것 같지 않다”²¹⁾는 극히 애매한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그와 같이 安易한 결론으로 問題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만약 그러한 결론만으로 끝난다면 본래 農民文學이라는 概念自體가 無意味하고 따라서 農民文學이라는 것 자체가 意味없는 일이 되어 버릴 것이다.

이 “農民文學號”부터는 또 講座形式인 許日의 「農民詩作法」(다음號까지 계속, 1932년 11월號에는 같은 作者의 「農民小說짓는法」도 있다.) 외에 많은 作品이 掲載되기 시작했는데 編輯者의 다음과 같은 말에서도 그 意慾을 엿볼 수 있다.

朝鮮農民은 文學을 못가진 農民이기 때문에 「農民」은 늦었으나 이제부터 그 必要를 絕對로 느끼고 農民文學建設의 重要的 役割을 또 한가지 늘리었다. 農村에 널려있는 青年農民들이 이제부터 새로히 文藝方面에 뜻을 두고 詩, 小說, 戯曲에 있어 多讀多作의 習作을 거듭하는中 佳作이라고 自信되는 作品이란 모조리 보내라²²⁾

그리고 投稿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注文을 하고 있다.

이즘 우리 「農民」에는 文藝方面에 關한 投稿가 많습니다. 勿論 大 환영하는 동시에 깃거운 現象이외다. 그것 역시 紙面關係로 —히 못실는 것이 유감이외다. 그런데 文藝에 關해서는 너무 漠然하게 人生을 그리거나 그냥 田園美를 그리려는 그런 努力을 많이 發見합니다. 좀 더 우리들은 農民文學的 見地에서 批判的으로 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農民文學으로서 그 所謂 田園文學과는 區別되는 點이외다.”

그후의 「農民」所載 農民文學論으로서는 한빛의 「田園文學과 農民文學」(1932. 12), 林玄極의 「農民文學의 新規定」(1933. 1~2) 등이 主要한 글이다. 한빛의 「田園文學과 農民文學」은 우선 田園文學과 農民文學이

20) 白民, 「農民」1932. 8, pp.2-5.

21) 「農民」1932. 8, pp.6-7.

22) 編輯餘言, 「農民」1932. 9.

그 內容·形式·立場이 全然 區別되어 있는 것을 지적했다. 田園文學은 田園을 讚美하는 文學이고 “그것을 쓰는 사람도 都市사람이요 읽는 사람도 都市사람들이었다. 그중에도 識者階級이요 有產有閑階級이었다.” 고 하고 또 “農村의 病弊, 衰頹, 破滅—이것은 田園文學의 沒落을 意味하는 反面에 必然的으로 農民文學을 產出하게 하나니—一般 農民의 過重한 負擔, 都市文明의 ××, 外來資本의 土地兼併, 自作農層이 急激沒落, 地主階級の 無理××, 小作農民의 窮民化, 窮民의 流離 등등의 慘狀”이 農民文學 發生의 重要な 條件이 되었다고 분석하고, 그래서 農民文學에서는 어찌하여 이와같은 悲慘한 處地가 되었는가 그 原因에 대하여 嚴密히 批判해야 하며, 아주 破滅되기 전에 다시 農村을 振興시키고 農民들로 하여금 農村에서 安心하고 生活해 나갈 수 있는 方法을 가르쳐야만 한다고 主張했다. 또한 文體는 農民文學의 獨特한 文體가 있어야 하며, 形式은 內容에 맞게 “굵직굵직하게 무겁게 쓸쓸하게 굳세게 表現”하며, 言語와 文句는 農民들이 日常 使用하는 平易한 것을 택해야 하고 “農民의 意識, 農民의 觀念”을 가진 사람이 써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 나름대로 田園文學과의 差異를 糾明한 것이 특색이다.²³⁾

林玄極의 「農民文學의 新規定」은 우선 農民文學은 農民의 歷史的 地位(經濟的 破滅 때문에 생긴 階級的 分化에 의하여 할 수 없이 下層으로 떨어진 農民의 位置)와 役割을 認識하고 實踐하려는 農民이나 인테리가 農民을 위하여 쓰는 文學이라고 規定을 내렸다. 그리고 鄉土藝術이나 田園文學 등의 類似藝術과도 區別되는 점은 農民 自體의 生活에서 發生하고 發展되는 文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機械文明과 對峙되었으며, 反現實的 農村文化를 建設하기 위하여 日本에서 提唱되었던 所謂「흙의 藝術」과도 意味를 달리 하였다. 農民文學은 도리어 “農民으로서의 機械文明利用, 都市交涉 등을 正當한 意味에서 提示하는데에 더욱이 重要性을 가지는 것”이라고 하였다. 다음 農民文學의 根本的 性質로서 農民

23) 한빛, 「農民」1932. 12, pp.26-29.

的·社會的·集團的·同志的·樂觀的 등 다섯 가지를 들었고, 農民文學의 材料로서 첫째, 農民의 環境에 關한 것으로 社會狀態·破滅狀態·小作關係·貸金關係·小作慣行 등, 둘째, 農民의 生活에 關한 것으로 無知·慣習·貧困·賤待·不平 등을 열거하였으며, “그러한 材料의 原因·現狀·結果와 및 그 사이의 關係를 提示하는 同時에 그 解決策을 提示”해야 할 것이라고 主張했다.²⁴⁾ 끝으로 農民文學運動에 대해서는 農民文學運動이 農民의 文盲退治와 自覺에 의하여 農民의 것이 될 때까지 意識 있는 青年은 特히 創作과 그 指導의 任務를 다해야 하며, “自由放棄한 農民文學은 그 形式이나 內容이 農民文學運動에 의하여 批判되고 整理되며 그리하여 새로 組織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그리고 그러한 農民文學運動은 農民運動의 하나이며 農民文學運動의 表現인 農民文學은 農民運動의 한 表現으로 생각하고 있다. 또한 農民社로서의 農民文學運動은 農民運動을 위한 한 部門의 運動이라는 것을 認識시키고 있다.²⁵⁾

기타 「農民」에 發表된 農民文學에 關한 글로서는 한빛의 「農民劇을 創始하자」(1933. 1), 「歌謠와 農民」(1933. 3), 林海彰의 「文學農民들에게」(1933. 3) 등이 있다. 林海彰이 5회에 걸쳐서 연재한 「農民詩評」(1933. 4~9)은 批評의 眼目을 “歷史的으로 본 思想의 內容(哲學的 態度)과 創作上으로 본 技術的 形式(藝術的 態度)”²⁶⁾에 둔 詩評이지만 農民詩評으로서의 처음 試圖된 것으로 그나름의 意義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以上 「朝鮮農民」誌에 掲載된 農民文學論을 검토했는데 全體的으로 大部分이 實際作品을 대상으로 해서 研究나 檢討를 하지 않았으며 아직도 未成熟된 것이었으나 農民文學을 獨自的으로 創造하고 探求하는 길을

24) 林玄樞, 「農民」1933. 1, pp.50-53.

25) 「農民」1933. 2, pp.27-28.

26) 「農民」1933. 4, p.42.

밝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郷土文學・田園文學・農民文藝 등 사용된 名稱이 사람에 따라서 다르고 思考의 方向도 조금씩 差異가 있으나 1930年代에 들어와서는 그 여러 呼稱을 農民文學이라는 概念과 名稱으로 통일할 수 있게 되었다. 이 時期「朝鮮農民」을 통한 農民文學論의 主要한 特徵으로는 다음 세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소위 郷土藝術이나 單純한 田園文藝로부터 탈피하자는 主張을 했다는 점, 둘째, 朝鮮農民社의 農民運動과 더불어 成長해 왔기 때문에 當時의 農民鬭爭과 깊이 관련하고 있었다는 사실, 셋째, 林玄極의 論文에서 農民의 階級的 分化가 논의되어 프로레타리아文學과 農民文學의 關係가 문제로 擡頭되었다는 점 등이다.

III.

그러던 이상 언급해 온 「朝鮮農民」의 農民文學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쳤으리라 생각되는 당시 日本의 雜誌「農民」派의 農民文學論은 어떠한 性格의 것이고 어떠한 論據에 의한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 本章에서는 日本의 農民文學運動의 歷史를 대충 돌이켜 보면서 「農民」派의 立場을 檢討해 보기로 한다.

日本의 近代文學史에서 農民文學運動이 始作된 것은 前述한 바와 같이 1923, 4年 즈음이었지만 그 直接的인 契機가 된 것은 1922년 12월 2일 吉江喬松・小牧近江・山內義雄 등에 의해서 立案 實施된 필리브(Charles-Louis Philippe) 十三周忌記念講演會였다. 그간의 事情은 高橋春雄의 「初期農民文學論과 그 性格에 대해서」에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이 필리브 記念講演會는 最初 小牧近江이 東京外國語學校 山內義雄를 찾았을 때 둘 사이에 計劃되고 그후 小牧近江과 吉江喬松을 中心으로 進행된 것 같다. 小牧은 講演會에 앞서 「땅에서 태어나는 藝術의 要求」라는 글을 「東京朝日」(1922. 10. 3~5)에 掲載하고 그 필리브會의 예고를 하면서 農民文學을 일으키기

를 호소했는데, 마지막 날 「附記」에 “루이·필리쁘의 승은 愛好者는 早稻田大學 吉江喬松氏나 다네마끼社 小生에게 연락 바람”이라고 썼다. 中村星湖도 이 「附記」를 보고 吉江喬松을 찾아갔으며 후에 小牧등과 필리쁘會의 計劃을 進행시키게 되었다. 그리고 그 自身도 「週間朝日」(1923. 4. 22)에 「郷土藝術에 대한 要求」를 실음으로써 初期부터 農民文學運動에 參加하고 있었다.²⁷⁾

1924년頃부터 吉江·中村 이외의 犬田卯·平林初之輔·推名其二 등이 모임을 가졌으며 거기에 加藤武雄·白鳥省吾·大槻憲二·和田傳·中山義秀·湯淺眞生·帆足圖南次 등이 參加하여 「農民文藝硏究會」(後에 「農民文藝會」로 改稱)가 組織되었다. 그리고 生田長江 對 金子洋文과 廣津和郎, 中野正人 對 悅田善和雄, 伊福部隆輝 對 中村星湖, 中村武羅夫·西川勉·山田清三郎 등 對 犬田·湯淺 등의 論爭²⁸⁾을 거치면서 1926년 10월에는 會合의 農民文學에 관한 研究 結果를 前掲 「農民文藝十六講」에 정리하고, 1927년 10월에는 드디어 雜誌 「農民」이 刊行(1927년 10월)되게 되었다.²⁹⁾ 이것이 第一次 「農民」이다. 그러나 이 第一次 「農民」의 會員은 創刊辭(加藤武雄)에 쓰여 있듯이 “애초부터 大同團結이어서 各自의 個性이나 思想 등에 內在하는 小異는 묻지 않는 一種의 自由連合”³⁰⁾이었기 때문에 思想上의 混亂³¹⁾과 對立을 초래했고 더러는 프로레타리아文學으로 轉換하기도 했다. 더구나 經濟的인 與件때문에 雜誌 自體가 다음해 6월에 廢刊되었다. 기타 이 時期 「農民」 이외에 注目할 만한 活動으로는 黑島傳治의 雜誌 「地方」³²⁾, 帆足圖南次와 中山義秀이 編輯한

27) 「國文學硏究」戰後 第12輯(早稻田大學, 1954. 12) pp.132-133. 기타 犬田卯著, 「日本農民文學史」 pp.12-20, “農民文藝運動의 端緒”, 山田清三郎著 「近代日本農民文學史」, 上卷 pp.11-36, “農民文藝의 要求と 1923年”(理論社, 1976)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28) 前掲, 犬田卯의 「日本農民文學史」 pp.30-38, “農民文藝にする批判と論駁” 參照.

29) 前掲, 犬田卯의 「日本農民文學史」 pp.39-53, “「農民文藝十六講」의 刊行, その他,” “機關誌「農民」의 發刊” 參照.

30) 前掲, 犬田卯의 「日本農民文學史」 p.50 再引用.

31) 마르크스主義·아나키즘, 그 中間的인 것, 思想的으로 전혀 애매한 것등. (前掲 「日本農民文學史」 pp.47-48).

「農民리애플릿」³²⁾, 「早稻田文學」, 「文藝戰線」, 「文藝」, 「文章俱樂部」 등에서 펴낸 「農民文學特輯號」 그리고 加藤武雄·木村毅·藤森成吉 共編의 「農民小說集」(新潮社 1926.6) 등이 있다.

이상이 大正末期에서 昭和初期까지의 農民文學運動의 略歷으로서 農民文學運動의 昂揚期라 할 수 있다. 이 時期 農民文學運動의 性格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당시의 農民文學論은 확실히 反都會主義·反世界主義·反近代主義라는 用語로 묶을 수 있는 思潮를 志向하고 있었다. 둘째, 당시 文壇의 여러가지 文學論이 亂舞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農民文學論의 性格을 한마디로 要約하면 牧歌의 田園文學을 排除한 「近代」批判이나 文明批評이었다는 것이다. 당시 農民文學運動의 背景에는 福田正夫·白鳥省吾 등 民衆詩派의 主張, 河野美博 등이 소개한 獨逸 鄉土文學論, 福土幸次郎·三井甲之 등의 地方主義와 傳統主義, 生田長江·伊福部隆輝 등의 重農主義, 그리고 石川三四郎의 “土民生活(데모크라시)” 主張 등이 서로 얽혀 있었다. 이 혼돈 속에서 하나의 農民文學 概念을 抽出하는 것은 어렵지만 公約數의으로 말해서 앞서 언급한 것처럼 「近代」批判이나 文明批評이라는 것이다. 이 批評들을 근거로 해서 吉江喬松은 “우리가 추구하는” 農民文學을 “經濟的으로 政治的으로 階級的으로 自覺한 農業勞動者의 自發的인 文藝表現”이라고 했다. (「農民文學十六講」의 “序문 대신해서”에서). 반면에 犬田卯는 “흙의 文學은 단순한 階級文學이 아니다. 그것은 當代 社會의 文藝이고 當代 社會의 意識·觀念에 立脚한 創作된 文藝이다.”고 말했다. (「農民文學十六講」의 “編著者序”) 이들 두 사람의 主張은 차이가 나지만 모두 農民文學運動의 性格을 「近代」批判的인 立場에서 파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第一次 「農民」이 廢刊된 後 第二次 「農民」은 農本主義者 加藤一夫등

32) 帝國地方行政學會가 刊行한 그다지 文學과는 關係가 없는 雜誌지만 黑島가 編輯을 맡은 1925.10~1927.5 사이에는 農村文化와 農民文學에 關係 各方面의 發言이나 作品을 積極的으로 취급, 掲載했다.

33) 綠地帶社에서 1926.8~1927.1 사이에 刊行한 선전용 인쇄물.

을 가입시켜 同年(1928年) 8月 農民自治會에서 發刊되었다. 이 책에서는 “都市 프롤레타리아를 農民의 階級 理論에 歸屬시키자”는 發想에서 “第一次「農民」에서는 雜誌의 性質上 프롤레타리아文藝와 農民文藝의 對立이 극히 애매했었는데” “第二次「農民」에서는 그 水準을 最高로 明瞭化하고 尖銳化” 할 것을 要求했다.³⁴⁾ 그리고 具體的인 方法을 “卷頭言”에서 다음과 같이 解説하고 있다.

지금 단계로서는 農民文藝의 理論의 根據가 體系의으로 認識되거나 확립되지 않았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것이 農民文藝가 無產派文藝가 될 수 없다는 증거는 되지 못한다. 農民文藝는 마르크시즘과 그들 唯一한 根據로 삼은 프롤레타리아文藝를 止揚함으로써 徹底히 無產階級性을 發揮할 수 있다. 프롤레타리아文藝 이상으로 革命文藝가 될 수 있다.³⁵⁾

第二次「農民」派의 性格은 空想的이라고 할 수 있다. 그 發想이 主情的·直觀的이고 人道主義나 精神主義와 혼돈되기 쉬운 애매한 面이 있었다.³⁶⁾ 그런데 이 第二次「農民」도 中西伊之助, 遊谷定輔 등이 轉向함에 따라 二號로 廢刊(9月號)되자 第三次「農民」이 全國農民藝術聯盟機關誌로서 1929年 4月 創刊되어 1932年 新年號까지(약간의 缺刊은 있었으나) 二年半 동안 續刊되었다. 反「農民」派가 프롤레타리아文學으로서의 農民文學과 同盟軍으로서의 農民文學이라는 觀點을 明確히 해 나가고 있을 때, 「農民」派는 數次 分裂되는 곡절을 거치면서도 第三次에 이르러서는 「프롤레타리아文藝批判號」(1929年 5月), 「브르조아藝術討伐號」(同 7月), 「自己清算號」(同 8月), 「都會에 대한 叛逆號」(同 10月) 등의 特輯號를 續刊했다. 그들은 여기서 加藤·鏈田·犬田 등을 中心으로 反마르크시즘·反모더니즘이란 슬로우진 밑에 “어떠한 마르크스도 宗祖

34) 「農民」1928年 8月號 卷頭言 “戰線は擴大された” <鏈田研一記>, 前掲「日本農民文學史」pp.77-78 再引用.

35) 前掲, 「日本農民文學史」, pp.78-79 再引用.

36) 高橋春雄, 農民文學論史 노트—1931年の論争をめぐって(「プロレタリア文學」所收 有精堂, 1971) p.190 參照.

도 存在하지 않았다.”(犬田「農民文藝理論을 清算하고 確立하기까지」—「農民」自己清算號)는 主體性을 갖고 「農民自治主義」³⁷⁾를 내걸고 나갔던 것이다.³⁸⁾

IV.

1930年 11月 소련 우크라이나의 하리코프市에서 열린 「프로레타리아 革命作家 第二回 國際大會」에서는 많은 報告와 決議가 있었다. 그 一般決議 중에 「農村프로레타리아트와 勤勞農民의 ××의 文學에 關한 決議」³⁹⁾가 注目할 만한 것이었다. 이 決議에서는 “農村프로레타리아트와 勤勞農民사이”에서 成長하고 있는 “強力한 文化創造의 勢力, 특히 文學의 勢力.”은 “國際的 프로레타리아作家運動의 巨大한 豫備軍의 하나가 될 수 있고 또한 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했고, 그래서 “第二回 國際××作家會議는 國際××作家同盟에 農村프로레타리아트와 勤勞農民의 ××의 文學을 위한 한 부분을 設置하고 世界의 모든 ××作家에 대하여, 農村프로레타리아트와 ××의 勤勞農民作家에 대해서, 또한 農村과 勤勞者 通信員에 대해서 特別히 호소할 必要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리고 農民文學部門이 담당할 內容과 支部組織에 關連된 構成員의 資格條件을 지시했다. 또한 “國際××作家同盟에 代表者를 보내고 또 國際××作家同盟에서 代表者를 參加하게 하고, 實踐하는 活動은 農民文學

37) 犬田의 말을 빌어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社會進化過程에 빠르게 따르는 運動——社會解放運動은 農民을 基本 樞軸으로 해서 모든 生産業과 知的 勤勞者등은 순순히 協동해야 한다. 이러한 形態를 가진 社會運動을 우리는 「農民自治主義」라고 불렀다.” “우리의 農民文學이 時代的 特性이라고 자랑할 수 있는 점은 무엇보다도 아나키즘이나 마르크시즘을 止揚한 境地——農生産階級을 主體로 해서 資本主義社會를 變革하자는데 觀點을 두었다”는 점이다. (前掲「日本農民文學史」pp. 151-156, “解放理論としての 農民自治主義” 參照)

38) 前掲「日本農民文學史」 pp. 85-105, “「全國農民藝術聯盟」의 結成と第三次 「農民」”, “プロ・ブル文藝に對する批判”, “農民文學理論の確立へ” 參照.

39) 日本에서의 翻譯發表는 1932年 1月, 「プロレタリア文學」創刊號에서이다.

部門이 完全히 獨立의으로 할 수 있지만, 活動에 대한 一般的인 指導는 國際××作家同盟이 하기로 되어 있었다.⁴⁰⁾ 이로써 프로레타리아文學運動이 비로소 農民文學에 대한 관심을提起하게 되었으며 會議參加國 22國 중 많은 나라가 農民文學運動을 시작하게 되었다.⁴¹⁾ 이 決議가 日本小委員會의 決議인 「日本프로레타리아文學運動에 대한 同志松山の 報告에 關한 決議」⁴²⁾에서는 日本프로레타리아作家同盟에 대한 八項目의 提案中 第三項으로서 다음과 같이 表現되었다.

國內에 큰 農民層을 가진 日本에서는 農民文學에 대한 프로레타리아트의 影響을 深化시키는 運動을 더욱 注意해야만 한다. 日本프로레타리아作家同盟의 內部에 農民文學研究會가 特設되어야 한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프로레타리아트의 主導權 밑에 놓여져야만 한다.⁴³⁾

이 趣旨에 따라 1931년 3월 「農民文學研究會」가 設置되었다. 또 同年 4월에 NAPF中央協議會가 낸 NAPF方針書에서는 “農民文化에 대한 프로레타리아의 影響을 助成하기 위해서 農村에 適應할 수 있는 移動活動의 形態가 필요하다”⁴⁴⁾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同年 5월 NAPF作家同盟 第三回大會가 열렸는데 그때 決定된 活動方針 五項目 중에는 다음과 같은 句節이 있다. “하리코프大會의 日本文學委員會 決議에 제시된 農民文學의 振興에 努力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는 과거에 決議한 것

40) 前掲, 「プロレタリア文學」1932年 1月, pp.18-20.

41) 韓國에서 이 會議內容이 紹介된 것은, 「“하리코프”에서 열린 革命作家會議」(東亞日報 1931. 5. 6~10)에서이다. 이것은 美國의 프로레타리아文學雜誌 New Masses에 掲載된 것을 朴泰遠이 번역한 것이다. 또한 權煥의 「하리코프大會 成果에서 朝鮮프로藝術家가 얻은 敎訓」(東亞日報 1931. 5. 14~17)이 있다.

42) 日本에서는 1931年 2월 「ナップ」誌上に 發表되었다. 이것은 總會日本委員會(日本代表는 松山〔勝本清一郎〕과 永田〔藤森成吉〕)에서 松山敏이 報告한 「日本プロレタリア文學についての報告—その沿革, 現勢, および將來」(ナップ 1931. 7 掲載)에 대한 擴大總會決議이다.

43) 「ナップ」1931. 2, p.4.

山田清三郎, 「プロレタリア文學史」下, 理論社, 1966, pp.261-263.

同「近代日本農民文學史」下, 理論社, 1976, pp.99-100 參照.

44) 1931年に於けるナップの方針書(「ナップ」1931. 4) pp.2-10.

을 實踐에 옮겨 이미 農民文學研究會를 만들었으나 이를 더욱 많은 農民大衆이 참가한 가운데 發展시켜야 한다.” 그리고 「農民文學研究會 活動 促進에 관한 件」을 특별히 취급 “從來 우리나라에서는 프로레타리아트의 立場에서 農民을 그린 作品이 다른 勤勞者, 예를 들어 工場勞動者를 취급한 作品에 비하여 質量 모두 뒤떨어져 있었다. 全人口의 四割五分을 農民이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큰 결함이 아닐 수 없다”고 批判하고, 하리코프大會의 提案을 “時宜를 얻은” 것으로 판단, 農民文學研究會가 “첫째 過去의 農民文學에 대한 批判, 둘째 農民文學에 관한 理論의 研究, 셋째 農民組合과의 協力” 등 研究題目을 明記하고는 研究會에 대한 “同盟員의 參加와 協力”을 希望했다.⁴⁵⁾ 또한 그때 作家同盟 本部에서는 常任委員會를 構成하는 組織의 一部로 “農民文學委員會”가 獨立的으로 설치되었다.

以上 日本 프로레타리아作家同盟에 農民文學研究會가 設置되기까지의 過程을 살펴보았는데 그 性格은 다음과 같다. 農民文學研究會가 막연하게 方向이나 課題를 提議하고는 있었으나 具體的인 方法이나 明確한 指標를 提示한 것은 아니었다. 뿐만 아니라 活動方針 중의 農民文學의 概念規定도 나중에 訂正된 것이 더러 있다. 그러나 이러한 農民文學研究會도 1931년에 들어 와서는 활발한 理論을 展開하게 되었다.

한편 韓國에서는 前述한 하리코프會議의 內容 紹介와 함께 權煥의 「하리코프大會 成果에서 朝鮮프로 藝術家가 얻은 敎訓」이 發表되었다. 이 글에서 農民文學에 관한 것으로는 勞農通信運動과 農民文學運動이 있는데, 첫째 勞農通信運動에 대해서는 “日本の 프로레타리아文學運動과 勞農通信運動과의 結附에 關한 日本프로레타리아作家同盟의 經驗을 다른 各國의 代表者에게 特別한 報告를 要求하였”으며 “文學大衆化事業의 일환”으로서 “大衆의 定期刊行物의 전취를 爲한 精力的 活動을 하지 않

45) ナップ各同盟年次全國大會報告—日本プロレタリア作家同盟第三回全國大會報告, 方針書(「ナップ」1931.7) pp.188-202.

으면 안될 것이다”고 했다.⁴⁶⁾ 둘째, 農民文學運動에 대해서는 이것이 “農民文學에 對한 프로레타리아트의 影響을 淨化하는 運動”이며 日本을 위한 決議에 따라서 日本에 農民文學研究會가 特設되어 農民을 프로레타리아트의 主導權 밑에 놓아야 할 것을 決議했는데 “이것은 朝鮮에 對해서도 훌륭하게 適用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는 “今後의 우리는 意識的으로 農民文學運動에 積極的으로 努力할 必要”가 있으며 “農民出身作家가 輩出하도록 積極的 援助가 必要”하다고 말했다.⁴⁷⁾

權煥의 글을 先頭로 1931년에는 農民文學論이라 할 수 있는 글들이 심심치 않게 발표되었다. 宋影이 1931년의 朝鮮文壇을 總評하는 자리에서 “今年에 있어서는 貧農層의 讀者를 大量으로 獲得할 努力이 相當히 發展되었으니 安含光氏의 「農民文學論」과 白鉄氏의 같은 問題의 檢討의 再提等과 또 카프同志들이 全力으로 여기에 對한 共同討議를 거듭한 事實들”⁴⁸⁾을 지적하고 있었다. 그럼 1931년에 發表된 農民文學論 中 主된 論文은 무엇인가? 그 資料를 들고 簡單히 解說해 보기로 한다.

(가) 安含光, 農民文學에 대한 一考察, 朝鮮日報, 8.12.13.

(나) 白 鉄, 農民文學問題, 朝鮮日報, 10.1~20.

(다) 安含光, 農民文學問題再論, 朝鮮日報, 10.21~11.5.

(라) 安含光, 農民文學의 規定問題, ——白鉄君의 데마를 一蹴한다. 批判, 12.

(※ 집필된 순서는 (가), (다), (나), (라)로 보인다.)

安含光은 (가)에서 우선 하리코프大會의 프로레타리아文學運動의 일환으로 農民文學의 關心이 提起되었으며 日本委員會의 決議에 따라 NAPF內에 農民文學研究會가 結成된 사실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현재 朝鮮프로레타리아運動의 農民文學問題에 對한 關心은 어떠한가를 묻고

46) 勞農通信運動에 대해서는 日本에서 하리코프會議以前에 NAPF中央委員會가 발표한 「藝術大衆化에 관한 決議」(「戰旗」1930.7, pp.166-176)에서 새로운 文學形式으로 提示된 바 있다. 山田清三郎의 「プロレタリア文學史」下, pp.257-260 參照.

47) 權煥, 東亞日報 1931.5.17.

48) 宋影 「1931년의 朝鮮文壇概觀—回顧와 批判」(「朝鮮日報」1931.12.23)

있다. 그리고 朝鮮農村의 經濟는 날로 위축되고 있다고 예를 들어 설명하면서 過去 朝鮮文學運動에서는 한번도 農民文學問題가 提議되지 않았으며 “朝鮮이란 特殊한 立場에서 現情勢를 觀望할 때 農民文學에 對한 切實한 社會的 要求를 看過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勞動者와 農民의 有機的인 提携가 필요하고 “貧農階級에게 對한 프롤레타리아 이데올로기의 積極的 注入을 念頭에 두지 않으면 안된다”고 農民에 對하여 프롤레타리아트가 主導權을 갖도록 主張했다.⁴⁹⁾

이에 대해 白鐵은 東京에서 쓴 (L)에서 우선 러시아의 프로문학에 나타난 농민문학문제부터 理論을 展開하고, 資本主義時代의 農民階級을 프롤레타리아階級으로 規定하고 있다. 그리고 러시아와 日本의 反動的 農民派를 批判하고 있는데, 러시아의 反動으로는 에세닌주의자 소위 “工業主義者의 職場”이라는 一派, 日本에서는 犬田卯을 중심으로 한 重農主義와 無政府主義 農民作家 一派를 예로 들었다. 이러한 “완고한 중간계급적 농민계급의 이데올로기를 반영한 에세닌일파에게는 농민적 이데올로기와 프롤레타리아 이데올로기에의 결합같은 것은 실현이 불가능”하고 일본의 “〈농민〉과는 결국 그들이 운운하는 농민문학이 빈농계급의 것인 대신에 부농계급을 위한 문학이며 농민 부르조아지를 옹호하는 그것이라는 것은 증언할 것 없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규탄했다. 따라서 “자본주의사회에서 농민은 프롤레타리아의 지도없이 아무 정당한 ××적 역할을 못하는 것과 같이 농민문학도 프롤레타리아문학의 밀접한 지도와 영향 밑에서만 정당한 발전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農民文學에 대한 過去의 잘못된 見解로서 日本의 立野信之・黑島

49) 安舍光, 農民文學問題에 對한 一考察(「朝鮮日報」1931.8.12~13) 安舍光은 여기서 “過去 우리文學에서는 한번도 農民文學問題가 提議되어보지 못했다.”고 하고, 이미 「朝鮮農民」에서 논의된 成果를 전혀 무시하고 있다. 이것은 그가 해방후 朝鮮農民文學을 回顧한 글에서도 그대로 답습되어 있다. “朝鮮農民文學의 特質의 回顧와 오늘의 方向”(安舍光, 「民族과 文學」, 平壤, 文化戰線社, 1947) pp.130-149 參照.

傳治·小林多喜二⁵⁰⁾ 등의 理論을 들고 “농민문학을 직접 프롤레타리아문학으로 또는 프롤레타리아문학의 일부로서” 보아온 “우익적 오류”와 다시 그에 대해 機械的으로 反撥한 左翼的 偏見 등을 지적했다. 그리고 앞의 安畝光의 見解 중 “빈농계급에게 대한 프롤레타리아 이데올로기의 적극적 주입을 운운”이라는 점에 비판을 가하고 이데올로기를 기계적·적극적으로 주입시킬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 이데올로기에 호응하도록 해야한다고 提言하고는, 中野重治의 “農民文學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은 옳게는 ××的 農民文學이라 불러야 하겠지만, ××的 農民文學은 반드시 프롤레타리아的인 文學일 수 없다”⁵¹⁾는 말을 들면서 “이 ××적 농민문학을 곧 프롤레타리아문학으로 換置하려는 점에서 안 군은 일본의 과거 견해와 같이 기계적 좌익주의 편향에 떨어진 것이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農民文學의 歸着點에 관해서는 中野重治·柴田和雄의 “농민문학은 중국에서는 프롤레타리아문학에 일치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들은 농민문학에 대한 프롤레타리아적 영향을 확보하며 점차로 그의 전위부분을 프롤레타리아문학에 획득하여 오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다. 그러나 전체로서의 농민문학이 프롤레타리아의 속에 해소되려면 장구한 역사적 계단이 필요하다.”⁵²⁾는 견해를 따르고 있다. 마지막으로 農民文學의 題材問題에 대해서는 “참된 ××적 농민작가는 필요한 범위 안에서 농촌의 일상생활과 환경을 취급하면서 자연적으로 농민이 고유하고 있는 세계관을 공교히 이용하는 데서 작품을 통하여 농민의 감정과 의식을 정당한 방면으로 돌려가야 되며 또 가게 될 것이다”고 確言했다.⁵³⁾

50) 立野信之, 農民小説論(『プロレタリア藝術教程』②, 1929.11 世界社), 黑島傳治, 農民文學の正しき進展のために(『讀賣新聞』1931.6.4~6), 小林多喜二, 文藝時評(『中央公論』1931.5)

51) 中野重治, 農民文學の問題(『改造』1931.7), 『農民の旗』p.321.

52) 柴田和雄(藏原惟人), 農民文學の正しき理解のために(『ナッパ』1931.7), 『農民の旗』p.297.

53) 白鐵, 農民文學問題(『朝鮮日報』1931.10.1~20). 기타 白鐵, 『朝鮮新文學思潮史—現代篇』(白楊堂, 1949) pp.152-158. 金允植 『韓國近代文藝批評史研究』pp.90-93. 申東旭, 『現代批評』pp.151-152 參照.

이상 두사람의 論述을 살펴보면 안함광은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積極的으로 注入시키는 手段으로 文學을 利用하고 있고, 이에 비해 白鐵은 文學의 政治的 예측성을 消極的으로 認定하고 있었다.

白鐵이 安含光의 論文에 批判을 가하자 安含光은 우선 (ㄷ)을 통하여 反駁했다. 그는 農民文學의 規定問題는 이미 二・三個月前에 日本의 農民文學研究會에 의해서 討論이 끝난 問題인만큼 白鐵의 意見은 하등의 創意性도 없다고 신랄하게 비꼬았다. 그리고 자신이 말한 “勞働者 農民의 有機的 提携 따라서 貧農階級에게 對한 프롤레타리아 이데올로기의 積極的 注入을 念頭에 두지 아니하면 아니되는 것이다.”라는 部分을 “貧農에 對한 見解와 政策은 決코 貧農階級에게 프롤레타리아 이데올로기를 機械的으로 命令的으로 注入시키는 것이 아니고…云云”이라고 “積極的”이라는 말을 “機械的”이란 말로 歪曲했다고 指摘했다. 또한 白鐵이 “原則論과 方法論의 區分을 認識치 못한 것”과 “이데올로기—的 斷面的 藝術的 具象化에 對한 데마”등을 비판했으며, 柴田和雄의 말을 引用하여 프로文學과 農民文學이 분명히 區別되어야 하는 理論的 根據를 提示하였는데 이것도 어디까지나 過渡的 形態일 뿐이며 農民文學도 “終局에는 프롤레타리아文學과 一致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라고 결론지었다.⁵⁴⁾

(ㄷ)에서는 過去 農民文學作品의 檢討와 展望을 통해서 朴芽枝, 金海剛 등의 詩, 民村의 「民村」, 抱石의 「農村사람들」 등의 小說을 批判하면서 이들은 “社會的 矛盾의 廣汎한 問題의 提起가 없으며 勤勞大衆의 數層의 階級的 生活世態의 情景 및 그 展開에 對한 正當한 寫實的 具象化의 展開가 不足하며 따라서 作者는 이러한 層의 社會와의 有機的 關係에 對한 具體的인 正確한 說破가 어느 程度까지 缺如되어” 있으므로 “農民層의 悲慘한 生活場面만을 提示하고 그 現實的 根據에 對한 何等の 究

54) 安含光, 農民文學의 規定問題—白鐵君의 데마를 一蹴한다(「批判」1931.12) pp.103-107.

명이 없는 불조아—레알리즘이 아니라 그 實相의 具體的 社會的 根據를 儼然히 階級的 立場에서 提示하는 푸로레타리아 레알리즘을 死守하지 아니하면 아니될 것”이라고 言及했다. 다음으로 프로의 同盟者인 農民이라는 觀點에 注意를 환기시키면서 農民出身作家의 進出과 그의 師匠의 役割問題를 다루었으며 農村에 對한 資本主義的 諸政策을 批判하고 農民文學의 反宗教鬭爭에 대해 記述했다. 그리고 結論으로 NAPF의 農民文學研究會와 같은 機關을 組織해서 그를 통해 農民文學問題에 관한 正當한 理論을 展開하고 水準을 높여야 한다고 主張했다.⁵⁵⁾

이상 安舍光과 白鐵의 評論 외에 1931년 이후에 나온 것으로는 金友哲의 一連의 評論들이 注目할 만하다. 金友哲은 「農民文學에 對한 過去의 誤謬」⁵⁶⁾에서 역시 農民文學規定問題를 들고 나와 우선 小林多喜二·黑島傳治의 오류를 지적하고 이것이 藏原惟人·中野重治에 의해서 批判되었다고 말했다. 「同盟者的 文學인 農民文學의 必然性」⁵⁷⁾에서는 農民文學은 “푸로文學의 指導와 影響을 받으면서 窮極에 있어서는 푸로레타리아文學—그리고 全人類의 面貌를 가진 文學(文化)에 解消될 必然性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으며, 「農村生活을 基礎로 農民文學을 樹立—〈잡프〉作家의 任務」⁵⁸⁾에서는 “今日의 朝鮮農村의 慘狀과 農民의 生活을 基礎로 하여 生生한 現實의 分析과 本質 運動의 究明으로부터 出發한 農民文學論”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55) 安舍光, 農民文學問題再論, (「朝鮮日報」1931. 10. 21~11. 5)

56) 朝鮮日報, 1933. 8. 12.

57) 朝鮮日報, 1933. 8. 13.

58) 朝鮮日報, 1933. 8. 15.

기타 1933년까지 發表된 農民文學에 관한 글은 白鐵, 農民詩人에게—년 6週忌에 際하여, (「朝鮮日報」1931. 12. 25~1932. 1. 27), 鄭日秀, 鄉土文藝와 農民文藝(「朝鮮日報」1932. 3. 26~30), 宋完淳, 農民藝術問題(「朝鮮日報」1932. 4. 5~20), 柳解頌, 農民文學의 理論(「批判」1932. 9), 朝鮮農民文學(「東亞日報」社說, 1933. 5. 1) 등이 있다.

V.

本章에서는 이상의 論爭에서 가장 核心的인 問題였던 農民文學의 概念規定이 日本의 農民文學研究會에서는 어떤 過程을 거쳐 統一되었는가를 살피 보고자 한다.⁵⁹⁾ 1931년에, 發表된 NAPP의 農民文學論에 관한 重要的 句는 다음과 같다.

- (A) 池田壽夫, 農民とプロレタリア, ナップ, 2.
- (B) 池田壽夫, 農民文學の新しい轉向—「農民とプロレタリア文學」其のニ, ナップ, 3.
- (C) 黒島傳治, 農民文學の問題, 東京朝日新聞, 4.22~24.
- (D) 本庄陸男, 農民を對象とした二つの作品, ナップ, 5.
- (E) 小林多喜二, 文藝時評—一時時肩を聳かして! 中央公論, 5.

59) 當時 農民文學의 概念은 대충 다음과 같은 세가지 見解가 있었다.

① “從來의 文藝가 都市偏重의 傾向이 있었고 都市居住者가 多方面으로 많이 묘사되는데 비해 地方사람의 生活 특히 農民의 生活이 비교적 等한시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中略) 農民小説의 定義는 어떠한지, 曁의 文藝란 무엇인가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논의가 있고(中略) 이 책은 다만 農民을 題材로 택한 것이나 題材의 一部分으로 農民을 다룬 것 정도의 基準에 의해서...” (藤森成吉·加藤武雄·木村毅編 『農民小説集』序, 1926.6 新潮社)

② “프로레타리아文學의 取材範圍는 두개의 광범한 世界를 나누어진다. 첫째, 勞動者(工場)를 그린 것. 둘째, 農民(農村·地方)을 그린 것. 후자를 전자에 비해서 우리는 보통 「農民小説」 또는 더욱 넓게 「農民文學」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特殊的인 分類에 지나지 않고 本質的인 範圍는 프로레타리아文學에 속하고 또 속해야 한다.” (立野信之, 農民小説論—「프로레타리아藝術教程」2輯— 1929.11, 世界社刊, 『農民의 旗』所收, pp.299-300)

③ “우리의 農民文學은 農民 그 자체 속에서 태어난다. 거기에는 獲得도 무엇도 있을리가 없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發生의 主體가 되는 農民(作家)의 意識이 農民主義로까지 發展되어 있는지 그 이데올로기가 확립되어 있는지라는 점이다. 文藝의 갈림길 예를 들면 그것이 부르조아文藝인가 마르크스主義文藝인가 農民文藝인가의 區別은 그 觀點에 있다. 부르조아文藝는 부르조아의 觀點에 입각하고 마르크스文藝는 마르크스의 觀點에 입각하며 農民文藝는 農民이데올로기에 立脚한다. 이것으로 明白하다.” (末木隆(犬田卯), 何をか農民文學と言ふ?, 『農民』1931.6. 『日本農民文學史』所收, p. 125).

- (F) 徳永直, 農民文學への暗示, 讀賣新聞, 5.
- (G) 黒島傳治, 農民文學の正しき發展のために—「ナップ派」より「農民派」への駁論, 讀賣新聞, 6.4~6.
- (H) 中條百合子, 五個年計劃 とソヴェートの藝術(五)—農民作家的任務, ナップ, 6
- (I) 細野孝二郎, 農民問題と文學『総合プロレタリア藝術講座』2, 内外社刊, 6.
- (J) 小林多喜二, 階級としての農民とプロレタリアート, 帝國大學新聞, 6.8.
- (K) 中野重治, 農民文學の問題, 改造, 7.
- (L) 宮本順治, 農民文學の發展, 東京日日新聞, 7.3.
- (M) 柴田和雄(藏原惟人), 農民文學の正しき理解のために, ナップ, 7.
- (N) 壺井繁治, 農民文學への新たな關心, 東京朝日新聞, 7.10~12.
- (O) 上田進, 詩人ベズイミヨンスキイの農民文學論, ナップ, 8.
- (P) 黒島傳治, 農民文學の發展, 若草, 9.
- (Q) 窪川鶴次郎, 文藝時評—農民文學への感想, 中央公論, 9.
- (R) 宮本順治, 農民文學のために, サロン, 10.
- (S) 小松原義孝, 農村における文學活動, ナップ, 11.
- (T) 作家同盟 農民文學研究會編, 『農民の旗』, 新潮週刊, 11.

이들 글 중에서 (C), (E), (K), (M), (N) 등은 모두 하리코프會議의 決議文 중 第三項 “國內에 큰 農民層을 가진 日本에 있어서는 운운”⁶⁰⁾ 이라는 提案에 根據를 둔 主張들이어서 第三項을 解釋하는 方法을 問題의 一部로 삼고 있다. 農民文學研究會 自體內에서 가장 옳은 見解라고 認定⁶¹⁾한 評論은 (K), (L), (M)으로 그들의 主張은 農民文學研究會의 理

60) 日本に於けるプロレタリア文學運動についての 同志松山の報告に對する決議(『ナップ』1931.2) p.4.

61) “作家同盟의 일은 農民文學의 分野에서도 특히 새로운 進展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것은 첫째 農民文學에 대한 뚜렷한 論理的 規定에 到達했다는 것을 意味한다. 中野重治나 柴田和雄 등의 理論的 勞作이 農民文學을 革命的 負擔의 文學이라고 명료히 認識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銘記해야 한다.” (宮本順治, 農民文學のために!, 『サロン』1931.10. p.38). “立野信之나 池田壽夫의 의견중에는 낡고 잘못된 점이 있으니, 柴田和雄나 中野重治등의 바른 점과 比較할 것을 바란다. 兩者의 比較에 의해서 理論的 發展의 흔적이 明瞭해질 것이다.” (『農民의旗』序, 新潮社, 1931, p.4)라는 구절이 있다.

論展開의 到達點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 (A)에서 (T)까지 農民文學의 理論 定立을 위한 過程을 살펴 보기로 하겠다. 「ナップ」에 連載한 池田壽夫의 (A)에서는 “우리의 프로레타리아文學은 ××의 프로레타리아트의 立場에 서서 그 前衛의 눈을 가지고 勞動者階級을 對象으로 해서 만들어 낸 것이라면, 農民과 勞動者가 階級的 範疇를 달리하는 以上 問題는 언뜻 본 만큼 單純한 것이 아니다.”라는데 問題를 提議하고, 結論의 第二項에서는 “勞動者와 貧農과의 政治的 結合, 프로레타리아트의 主導權을 모든 作品의 구석구석까지 침투시켜야 한다.”고 主張했다.⁶²⁾ 이 表現에서 하리코프會議 日本委員會의 決議文 中 “그러나 어디까지나 프로레타리아트의 主導權 밑에 놓여져야만 한다.”⁶³⁾라는 글귀의 흔적을 느끼게 하는데 이것은 池田이 發表前에 決議文을 읽어보고 意識的으로 決議文의 理論의 解明을 가한 것으로 생각된다. (決議文과 池田의 글은 같은 해 같은 달 같은 雜誌에 發表되었다.) 그러나 (A)는 結論文의 序頭인 “農民과 勞動者가 階級的 範疇를 달리하는 以上 운운”이라는 견해에 대해서는 아직 細部的인 言及을 하지 않았다.⁶⁴⁾

(B)는 (A)의 續稿이나 “프로레타리아트만이 가질 수 있는 農民을 對象으로 해서 文學의 새로운 轉向과 展望”을 意圖하는 發想에서 쓰여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發想으로는 「農民文學」이 「프로레타리아文學」以外的 것으로 생각할 수 없다는 極端的인 結論에 到達하게 된다. 따라서 “都市勞動者와 公히 結合하지 않고는 農民의 勝利와 解放이 있을 수 없다는 마르크스主義的 이데올로기”를 強化하고 “프로레타리아트의 主導力을 確立”하자고 주장했으며 農民文學의 새 出發點을 “貧農과 富農이 階級鬭爭하는 現實”에만 두었다.⁶⁵⁾

62) 池田壽夫, 農民とプロレタリア文學(「ナップ」1931.2) pp.60-72.

63) 日本に於けるプロレタリア文學運動についての 同志松山の報告に對する決議(「ナップ」1931.2) p.4.

64) 高橋春雄, 農民文學論史ノート——1931年の論争をめくって, (『現代文學序説』第2號, 1963.6, 『プロレタリア文學』有精堂, 1971, 所收) pp. 185-186.

(E)에서 小林多喜二는 그 점을 더욱 명확히 하였으며 “우리가「農民文學」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어디까지나 프로레타리아트의 觀點에서 農民을 다룬 作品이라는 뜻이다. 農民文學은 프로레타리아文學 以外の 아무 것도 아니다. 다만 都市의 프로레타리아트를 다루는 作品에 대해서 便宜上 農民文學이라고 하는데 지나지 않는다.”(방점은 原文대로)고 하고 前記 池田의 論文을 注目해야 한다고 말했다.⁶⁵⁾

黑島傳治는 (G)에서 프로레타리아트의 主導力에 관해서 “슬로우전은 小説로 說明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열심히 現實과 맞붙어야 한다. 그 진지한 씨름의 結果가 自然히 거기에 도달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 理論 그 自體에는 距離가 있는 것 같으나, 農民文學의 範疇에 대해서는 “우리가 農民의 生活을 題材로 하는 文學을 農民文學이라 부를 때 그것을 프로레타리아文學과 나란히 세워놓고 對抗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反戰·反軍國主義의 文學을 反戰文學이라 부른다. 그와 같은 意味에서 農民을 題材로 한 文學을 農民文學이라 부른다. 다같이 프로레타리아文學內的 한 分野이며 프로레타리아文學에 包括된 것이다.”⁶⁷⁾ 라는 觀點에 서 있었다.

이 觀點을 訂正한 사람들이 中野·藏原·宮本·壺井 등이었다. 中野는 (K)에서 우선 「農民」派의 農民主義·農民自治主義라는 것은 農村의 階級對立을 숨기는 한편 都市와 農村을 對立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한 다음, “우리는 지금까지 農民文學은 프로레타리아文學의 一種이라는 정도의 생각을 해왔다. 예를 들면 黑島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고 하고 前掲 黑島의 글을 引用하고는 “이 黑島의 研究는, 프로레타리아文學과 農民文學을 나란히 놓고 對抗적인 것으로 說明하는 것(소위 「農民」派의

65) 池田壽夫, 農民文學의 新しき轉向(「ナップ」1931.3, 『農民의 旗』所收) pp. 324-325.

66) 小林多喜二, 文藝時評——時時, 肩を並やかして! (『中央公論』1931.5) p. 365, 小林은 (J)에서도 비슷한 견해를 강조했다.

67) 黑島傳治, 農民文學의 正しき進展のために——「ナップ派」より「農民派」への駁論, (『讀實新聞』1931.6.4~6).

農民文學論을 가르킴——筆者註)에 비해서 훨씬 옳은 見解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農民文學을 「프로레타리아文學의 한 分野 운운」이라고 하는 한 상당히 막연하다고 생각한다”고 論評했다. 中野는 프로레타리아의 農民文學과 프로레타리아文學은 區別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했으며, 農民을 포함한 小브로조아××分子를 너무 넓은 規準에서 取扱할 것이 아니라, 農民의 生活 속에 남아있는 過去의 것과 우리 주위에 흔히 볼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取扱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農民의 生活과 農村의 生活을 묘사하는데 있어서도 農民의 組織網이 擴大된다는 前提 아래서 하면 안되고, 農民의 生活 속에 깊이 뿌리박혀 있는 保守性과 反動에 利用되기 쉬운 傾向이 再燃되지 않도록 注意해야 하며, 그런 點에서 勞働者·農民이라는 식으로 한마디로 나란히 놓고 問題를 삼는 태도를 止揚해야 한다고 論述하고 있어 以前의 農民文學論보다 상당히 변화를 보이고 있다.⁶⁸⁾

宮本顯治의 (L)은 中野의 論文中에서 從來 프로레타리아트의 立場에서 農民을 취급한 作品을 農民文學이라 불러 오던 것을 프로레타리아文學이라고 고쳐 부르고 또한 革命的 農民(프로레타리아트의 同盟者)의 立場에서 農民을 취급한 文學도 프로레타리아文學으로 看做해야 한다는 見解를 注目하고 이를 全面的으로 認定했다. 그리고 이러한 農民의 範疇를 옳게 設定하면 프로레타리아트의 戰略을 보다 바르게 實踐化해 나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宮本도 “農民文學論은 아직도 상세히 規定되어야 할 면을 갖고 있다”고 단서를 붙였다.⁶⁹⁾

같은 달에 發表된 藏原惟人の (M)은 農民文學理論의 指標를 구축했다고 評價⁷⁰⁾ 받은 論文으로 (1) 農民文學理論確立의 必要 (2) 農民은 어디로? (3) 소비에트治下의 農民과 우리의 目標 (4) 「農民」一派의 農民文

68) 中野重治, 農民文學의 問題(『改造』1931.7. 『農民의 旗』所收) pp.316-323, 高橋春雄, 前掲書, p.187 參照.

69) 宮本顯治, 農民文學論의 發展(『東京日日新聞』1931.7.3).

70) 山田清三郎, 「近代日本農民文學史」下, p.168.

學論 (5) 同盟者文學으로서의 農民文學이란 다섯 項目으로 되어 있다. 그는 立野·黑島·小林·池田등이 展開한 農民文學論의 발자취를 評價하면서 若干의 誤謬를 訂正하였다. 특히 앞에서 言及한 小林이나 黑島의 見解를 다음과 같이 訂正했다. 프로레타리아트는 歷史的 使命을 다하기 위해서 “民衆의 大部分”을 차지하고 있는 “都市의 小브르조아지와 農民”의 支持가 必要하며, “하리코프會議의 決議도 「農民文學에 대한 프로레타리아트의 影響을 深化시킨다」고 했을 뿐 「農民文學을 프로레타리아文學의 一部分으로 한다」고는 말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農民文學은 結局 프로레타리아文學과 一致하는 것”이긴 하나 “農民文學이 프로레타리아文學 속에 融合되기 위해서는 긴 歷史的 段階가 必要하다”고 記述했다. 그리고 農民文學研究會의 任務로는 첫째 “農民文學을 바르게 理解하고 農民文學論을 確立할 것”, 둘째 “農民作家(農民通信員을 포함해서)의 創作活動을 指導할 것”, 셋째 “農民作家를 組織하는 方法을 研究하고 實行할 것”을 들고 있다.⁷¹⁾

壺井繁治의 (N)의 見解도 똑같이 “農民文學은 프로레타리아文學의 一種이라는 이제까지의 規定 대신에 프로레타리아트의 가장 有力한 同盟軍인 貧農大衆의 文學이라고 規定”하여 하리코프會議의 “農民文學에 대한 프로레타리아트의 深化”라는 規定을 理解하려고 했다.⁷²⁾

이리하여 뜻밖에도 7월에 나온 論文에서 한결같이 프로레타리아文學과 農民文學이 區別되어 農民文學에 대한 見解는 당초의 生경한 理論에서 한결음 現實的으로 前進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것은 한달에 한두 번 가졌다고 報告되어있는(1931年度의 運動方針) 研究會의 成果 중 하나였는지도 모른다.⁷³⁾

이상으로 하리코프會議의 日本委員會에서 提起되었던 農民文學을 解

71) 柴田和雄, 農民文學의 正しき理解のために(「ナップ」1931.7. 『農民の旗』所收) pp.281-298.

72) 壺井繁治, 農民文學への新たなる關心, (『東京朝日新聞』1931.7.10~12).

73) 高橋春雄, 前掲書, p.187.

釋한 論議를 살펴 보았다. 이들의 論文中에는 이상의 抽象的인 해석 의에도 우수한 見解가 있었다. 예를 들면, 中野重治의 見解로서 그는 農民文學의 具體的인 範疇를 다음과 같이 設定하고 있다. 첫째, 農民의 歷史 특히 德川時代 農民봉기의 研究를 꼭 할 것, 둘째, 明治維新의 農民史를 正確히 把握할 것, 셋째, 過去의 歷史를 勞動者의 鑄型에 鑄造되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그릴 것.⁷⁴⁾

이후의 見解는 큰 變化가 없이, 앞의 (G)에서 다소 모호한 理論을 꺾던 黑島도 (P)에서는 前述한 中野·紫田·壺井 등의 見解를 따랐으며 (Q)의 窪川도 같은 취지에서 “批評家가 機械的으로 될 경우 作家로 하여금 作品에 프로레타리아 이데올로기를 機械的으로 注入하게 하며, 農民生活의 諸特性이 輕視되는 結果를 초래하여 農民을 취급한 作品으로서 生氣를 잃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⁷⁵⁾

끝으로 (T)의 「農民의旗」는 自身の 過去에 대한 嚴密한 自己批判과 새로운 出發의 礎石으로 하기 위하여 農民文學研究會의 設立과 同時에 기도된 것이나, “評論”部에는 前記 (B), (K), (M), (N), (P)와 立野信之의 「農民小說論」을 收錄하고 있다.

한편 1931年 後半에 앞서 언급한 「農民」派와 NAPP사이에 論爭⁷⁶⁾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小林多喜二가 5月の 「文藝時評」에서 소위 農民文學이라 하는 것은 프로레타리아트의 視點에서 農民을 取扱한 것 뿐이며 프로레타리아 文學以外的 아무 것도 아닌 것을 다만 都市의 프로레타리아트를 取扱한 作品에 比較해서 便宜上 農民文學이라고 하는데 지나지 않는다고 해서 「農民」派에 하나의 口實을 주는 端緒를 만드는데 비롯된 것이다. 이것은 「農民」派에서 보면 확실히 對蹠的인 見解였다. 즉시

74) 中野重治, 前掲書, p.323.

75) 窪川鶴次郎, 文藝時評(「中央公論」1931.9) pp.351-352.

76) 犬田卯, 「日本農民文學史」의 “ナツプ” 農民文學의排撃” pp.123-123, 山田清三郎, 「近代日本農民文學史」(下)의 “ナツプ=作家同盟의 農民文學理論と「農民」派의主張” pp.159-171 參照.

「農民」6月號에「나프派 農民文學撲滅號」라는 이름 아래 茨木隆(犬田卯)의「무엇을 農民文學이라 하나?」, 松原一夫의『『나프派』의 文藝와 우리」, 眞船晃一의「흠위에 놓인 農民文學——마르크스主義 農民文學의 排擊」, 寺神戶誠一의『『나프』派 農民文學論者에게 가르침——특히 小林多喜二·黑島傳治·池田壽夫의 小論을 論駁한다」등으로 反論했다. 그리고 이 特輯이 動機가 되어 前述한 바와 같이 讀賣新聞紙上⁷⁷⁾에서는 6月 1日 부터 6日까지 犬田과 黑島에게 쌍방의 立場을 代辨시켰으며, 그때까지 전혀 상대하지 않았던 나프派에서도「農民」派를 향해서 일제히 論陣을 펼 것이다.

이 論爭의 核心은 물론 農民의 歷史的 階級的 位置를 둘러싼 것이었다. 「農民」派의 가장 中心的인 存在였던 犬田은「무엇을 農民文學이라 하나!」에서 小林의 文章中에서“便宜上 農民文學이라고 한다”의“便宜上”이라는 表現을 트집잡아“만일 마르크스主義에서 農民文學이 태어난다고 하면 그것은 都市프로레타리아의 主導權 밑에 農民을 隸屬시키려고 기도하는” 사이비文學이라고 단정했다. 또한 農民은 브르조아한테 착취당하고 지배된 것과 같이 다시 都市프로레타리아나 프로레타리아의 假面을 쓴 인테리의 支配層의 奴隸가 되고 被搾取者가 된다는 觀點에서 農民自治主義라는 農民이데올로기에 立脚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農民이데올로기”라는 말은 犬田이 자주 쓰는 用語로서 그의 핵심이 되는 思想이나, 內容은 극히 막연한 것이었다. 예를 들면 犬田은 1931年 12月 경「農民이데올로기 메모」에서“農民이데올로기 그것은 바꾸어 말하면 生産者의 正義觀이 階級的으로 組織된 것으로 人類의 社會的 正義라고 할 수 있다.”라든가“요약해서 말하면 農民이데올로기는 社會的 自治意識이다”라고 애매한 表現을 하고 있다.⁷⁸⁾ 또「理性을 잃은 그들」에 나타나

77) “나프는 바야흐로 文學運動의 方向을 農民文學으로 잡고 있다. 또 한편 雜誌「農民」은 나프의 農民文學運動에 대한 撲滅號를 發行해서 挑戰하고 있다. 지금 兩者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여기에 發表하고 研究問題로 삼는다. (『讀賣新聞』 1931. 6. 1).

있는 文學觀도 “作者의 態度가 農民이데올로기에 있는 限, 그 文學은 農民을 그리든지 都市의 小브르조아·大브르조아 내지 貴族을 그리든지 여하간에 그것은 엄연히 「農民文學」이다.”와 같이 主觀的인 것이었다.⁷⁹⁾

한편 作家同盟側은 이러한 農民이데올로기나 農民自治主義의 非科學性을 꼬집었다. 藏原은 이를 (M)에서 “白日夢”⁸⁰⁾이라 했으며, 中野는 (K)에서 “그사람들이 主張하는 것은 無理論이며 그사람들의 役割은 주로 地主의 利益擁護밖에 없다”⁸¹⁾고 배척하고, 壺井도 (N)에서 農村의 階級分化(地主의 브르조아化·貧農·小作人의 프로레타리아化)를 無視하고는 머리속에서 제멋대로 農民一般을 만들어 내어 農民全體의 經濟와 이데올로기가 프로레타리아階級에 對立되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여 프로레타리아文學과 農民文學을 對立시키려고 한다고 비난했다. 따라서 프로레타리아트의 有力한 同盟軍인 방대한 勤勞農民大衆으로부터 프로레타리아트를 孤立化시키려는 브르조아지의 意圖와 客觀的으로는 一致하다는 점에서 완전히 反××的 農民文學論이라고 反論했다.⁸²⁾

이 論爭은 거의 3개월을 끌었다. 論爭의 成果로서는 우선 作家同盟측의 農民文學 概念 規定에 變化를 가져오게 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 때까지 小林이나 黑島의 “農民文學이 프로레타리아文學 그 自體”라는 見解가 7월 이후 藏原·宮本·中野·壺井·窪川등에 의해서 訂正되어 “더욱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을 積極的으로 취급해 나가야 되겠다”(中野)는 見解와 “프로레타리아의 가장 有力한 同盟軍으로서의 貧農大衆의 文學”(壺井)이라는 見解로 변모되어 農民의 에네르기를 現實的으로 짜내는 方向으로 나갔던 것이다. 이것은 물론 作家同盟自體의 文學的 體驗이 누적되었기 때문이며, 農民文學研究會의 研究檢討 結果이다. 그러나

78) 大田卯, 「日本農民文學史」, p.136.

79) 大田卯, 血迷える彼等——農民主義の立場より(「東京朝日新聞」1931. 6. 2~4).

80) 藏原 前掲書, p.291.

81) 中野 前掲書, p.317.

82) 壺井 前掲書, p.314.

“프로레타리아文學運動의 陣營內에서 農民文學理論이 急激한 發展”⁸³⁾을 보았다고 評價할 정도로 變貌된 論文中 大部分이 「農民」派의 農民文學論에 대해서 言及하고 批判하면서 論旨을 展開한 점은 역시 「나프派農民文學撲滅號」를 비롯한 「農民」派의 攻擊이 理論的 轉換의 큰 刺戟劑가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VI.

본래 文學에는 農民文學도 都市文學도 勞動者文學도 없다고 할 수 있다. 文學 그 自體가 있을 뿐이고 對象이나 素材나 또한 作者가 어떤 社會階級이나 階層에 속하는가라는 것도 問題가 될 수 없다. 重要한 것은 農民을 그린 우수한 “文學”이며, 그러한 것은 일부러 “農民文學”이라고 할 必要도 없겠으며, 그것이 農民文學의 理想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原則論일 뿐이고 그러한 말로 問題가 解決되지 않는 데에 韓日 近代文學의 特殊性이 있는지도 모른다. 開化期以來 韓國과 日本에서의 文學은 오로지 都市的인 文學으로 發展해왔다. 都市的인 風俗小說이 아니면 都市小市民의 知的文學이 主流를 이루고 있었다. 약간의 例外는 있지만 農民의 生活을 內面的으로 깊이 파고든 文學은 거의 쓰여지지 않았다. 「朝鮮農民」의 農民文學論의 主要 論點에도 나타나 있듯이 大部分의 作家는 農村에서 分離되어 都市生活속에 있었으며, 小市民的인 日常生活과 그 周邊에 文學的 關心을 限定시키고 그 이상으로 발을 내디디지 않았다. 따라서 農民의 生活과 마음속으로 깊이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 이것은 물론 作家의 責任만은 아니다. 開化以來 近代社會는 한편으로 資本主義가 急速히 發展했으며(韓國에서는 물론 日帝의 植民地統治 下라는 狀況에서였지만) 또 한편으로는 農村에 半封建的인 小作制度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었다. 또한 日本에서는 天皇制純對主義, 韓國에서는

83) 窪川 前掲書, p.350.

植民統治下の 反帝와 反封建이라는 形態의 秩序와 思想이 支配하고 있었다. 이러한 狀況속에서 近代의인 人間的 要求에 눈뜬 作家들은 심한 社會的 孤立을 體驗하고, 그 孤立속에서 自己폐쇄적인 小世界를 만들어 갔다. 그런 作家의 態度가 近代文學의 私小說의인 性格을 만들었던 것이다.⁸⁴⁾

그러나 그런 狀況에서도 日本에서는 明治 30年代(1897~)以來, 韓國에서는 1920年代부터 農民을 그리기 위한 貴重한 試圖가 少數作家에 의해서 행해졌고, 日本에서는 大正 末年(1923~4), 韓國에서는 1925 年頃부터 意識的으로 그를 위한 理論的 追求나 創作上의 實驗이 실시되 어 왔던 것이다. 말하자면 既成文學의 現狀에 不滿을 느끼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農民文學은 提唱되었다고 할 수 있다. 本稿에서 檢討 한 것은 그중에서도 1930年 前後의 農民文學論에 관한 것이며 그 論點 들을 整理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李晟煥에 의하여 提唱되어 「朝鮮農民」을 통해서 展開된 農民文學論은 日本의 農民自治派의 農民文學運動처럼 文學運動이라는 形態를 취할 정도로 組織的인 運動形態를 가지지는 못했다. 그러나 朝鮮農民社의 農民運動을 背景으로 일어난 最初의 試圖였다는 점에서 貴重한 것이 었다. 그러나 거기에 나타난 農民文學이 韓日 모두 郷土藝術, 地方主義, 흉의 藝術등 막연한 反都市主義, 反近代主義로 묶을 수 있는 것이 었다. 또한 1931年 以後에 일어난 프로派의 農民文學論도 그리 反映된 것이 아니었다. 移植的인 革命觀念으로 日本의 現實을 억지로 해석하려 는 면이 있는 프로레타리아文學에 대해 日本의 農民自治派가 反撥한 것 은 정당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觀念속에서 제멋대로 農村을 만들어내고 그에 어울리는 一種의 反都會主義的 妄執과도 같은 強烈한 主觀으로 運動의 論理를 構成하고 거기에 自身을 投入하고 있었다. 그

84) 小田切秀雄, 日本農民文學史の展望(犬田卯, 「日本農民文學史」解説) pp. 175-223 參照.

러한 점은 「朝鮮農民」의 農民文學論에서도 볼 수 있다.

둘째, 安含光이 提起한 프로派의 農民文學論爭은 概念規定問題를 비롯하여 거의 모두가 日本 農民文學硏究會의 成果를 受容한 것이었다. 그리고 日本 農民文學硏究會는 「農民」派의 過去의 努力을 默殺하고 그들의 업적을 正當하게 評價하지 않았으며, 그러한 弱點은 安含光을 비롯한 農民文學論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었다. 「朝鮮農民」에서 展開된 그때까지의 試圖뿐만 아니라 金八峰 등의 見解까지도 無視한 것은 自身の 發展을 內面에서 拘束한 結果가 되었을 것이다. 結果적으로 카프의 農民文學論이 활발히 展開되지 못했던 것은 그들의 農民文學論 自體가 나프 農民文學硏究會의 刺戟에 의한 것일 뿐, 그들 內部에서 造成된 必然的인 趨勢가 아니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日帝의 탄압으로 인한 프로文學의 衰退도 그 원인의 하나로 들 수 있다.

이상으로 韓日의 農民文學論議에 대하여 미흡한대로 比較考察해 보았다.

앞으로의 課題는 첫째, 本稿에서 살펴 본 農民文學論을 背景으로 한 農民文學作品을 충분히 檢討할 것. 둘째, 韓國에서 1930년대 後半과 40년대 初에 農民文學論議가 다시 再論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日本에서 中日戰爭後 식민지정책을 위해 造成된 「農民文學懇話會」의 정책을 受容한 소위 “生産小說”의 일환이었다는 점을 어떻게 評價하느냐는 問題 등이다.